

꽃향기나는 마을친구



Part1

꽃향기나는 마을친구
“천연 향비누 만들기”



우리 동네 
뜨개방

2020. 7



만들어져라 만들어져라
향이 좋고
건강에 좋은
천연비누 만들어져라



우리는
향기나는 마을친구
예쁘고 건강한 비누를 만들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00엄마! 덕분에 시원한 커피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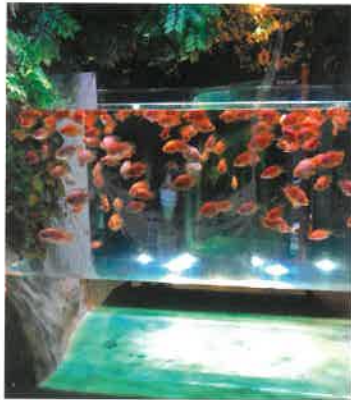
언니 고마워요~
잘먹겠습니다

작은 호의가 릴레이가 되버렸어요

집에 키우던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00할머니! 제가 집에 있는
물고기 분양해드릴까요?
가져다드릴게요

00엄마, 고마워요



00엄미! 물고기 너무 많이 줬다.
고맙네~ 이거 내가 뜯 건데 써봐

00할머니, 너무 예뻐서 못쓰겠는데요?
감사해요

선물릴레이(커피-물고기-손수세미-책 등등)

아이들 권장도서 돌려가면서
읽자
다음주엔 00이네로 빌려줘~
그리고 00엄마도 이 책 좋던데
읽어봐

네~ 너무 좋은 생각이예요.
적도 잘읽어보고 놀릴게요.





A: 처음뵙겠습니다. 반가워요~ 하진이 엄마예요.

B: OO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같은학교다니거 같아요.

A: 네 맞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C: 뜨개방인지 어린이집인지 모르게 손녀를 키우고 있는 예린이 할머니예요.

D: 저 여기 알고 있어요. 뜨개질옷이 이뻐서 기웃거렸답니다. 전에 길옆에서 빵집했었어요.

C: 저도 거기 빵 좋아했는데, 예린이랑 자주갔어요. 반가워요.



친구의 친구를 데려온 이 만남은 이렇게 어색하게 혹은 우리도 모르게 연결되었다는걸 알게되며 시작되었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공예연구센터에서 천연비누 강사님이 오셨어요.

열정적이고 건강하신 이 강사님은 건강을 위해 천연제품을 사용하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구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며 이웃과 같이 배우고 성장하셨다는 얘기는 저희에게 큰 동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허브향이 뜨개방을 가득 채워요.

아주 좋은 향수보다 기분좋은~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라벤다향 강력한 살균으로 우리몸을 보호하는

레몬글라스향

염증을 낮게하는 힐링의 티트리향



두시간 넘기 우리는 집중해서 비누와 모기퇴치제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족이 쓸 것과 이웃에게 나눠줄 것들~

너무 재미있어서, 우린 당장 다음에 한번더 만들기로 했어요.

한번 더 만들어요~



레몬향나는 천연 주방세제와
티트리오일 넣은 친환경 세탁세제를
열정적인 감사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너무 잘했어요. 대~~~~백!



이웃에게 선물하기

선물한 이웃

건강하고 좋은걸 직접 만든걸 주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비누하나를 선물하고 나니,
더 선물하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웃에게 선물을 했네요.

love

선물받은 이웃

너무 이쁜데 정말 만들었어요?
동물모양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것 같아요.
구형에서 그런 자원을 받다니 대단해요.
나중에 만들면 불러주세요~

Part2

꽃향기나는 마을친구
“밖에 나가서 놀기”





2020년 8월 어느날 오솔길공원

반가워~ 나랑 친구할래?

토끼가 사는 오솔길공원이 있는
신월7동 우리 마을을 그려줘요.

하늘에는 핑크색으로
예쁜게 예쁘게만 그리고,
예쁜이든 토끼가 사는 공원을 그려요.
세면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로 꽃마음을 그려요.

그저 '안녕?' 하면, '안녕' 대답하고
그렇게 우리 친구가 되요





토끼하나, 둘, 셋...
열두마리 다 찾았다
토끼야 많이 먹어



토끼에게 밥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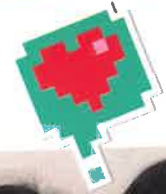
친구랑 바깥에서 놀기





사랑해~

LOVE





사랑해

우리는 마을친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해
앞으로도 꼭-

안녕?

우리는 마을친구

같이 놀래?

같이하는 것도
함께하면 재미있어!



코로나로 오랫동안 못나왔었지만,
 오늘은 새친구를 만나고
 맘껏 뛰어놀아요.
 맘껏 수다떨어요.



아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 동네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art3

—

꽃향기나는 마을친구
“힐링이 되는 홈파티”



우리 동네
골목길

코로나로 밖에는 못나가지만
우린 집안에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해요.
제가 만든 물고기쿠키 이쁘죠?





지금 시원한 차한잔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알까?
- 오늘의 하루



맛있는 차는 마을친구

꽃향기나는 마을친구

김연주

yjkim42@gmail.com

발행일 | 2020.09.01

지은이 | 김연주

펴낸곳 | 하루북

인쇄 및 제작 | 인터프로인디고

<https://harubook.com>

admin@espressobook.com

ESBN | EB200901030735-042071

* 이 책은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 이 책은 하루북 서비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추가 제작이나 구입은 (주)에스프레소북으로 문의하세요.

하루북